

2006년 정기총회를 마치고 나서

협회 및 회원병원의 2005 회계연도가 마감되고 새로운 회계 연도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임원 여러분께 본지(本誌)의 지면을 빌어 재삼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협회는 지난해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일취월장 발전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창립총회(2005.03.04)에서 의결된 주요 사업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는 가톨릭의료인 연합체로



최영식(마티아) 신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회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결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 분야에 대해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수익사업입니다. 협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수익모델로 채택한 보험창구사업 및 신용카드 VAN사업은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병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에 힘입어 지금은 공동사업으로 정착되어 회원병원에게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협회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의 전액은 궁극적으로 협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이념사업의 실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의도한 바대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톨릭 이념과 상치되지 않는 내용이고 회원병원 및 협회가 메리트를 공유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또 다른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 세계병자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교회와 가톨릭이념

실천을 위한 협회 사업 중에 매년 2월11일에 개최하는 세계병자의 날 행사가 2007년에는 제15회를 맞이하게 되고, 교황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대륙별 순환 기념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승인하여 이를 우리 협회가 맡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병자의 날 기념행사는 선대 교황이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성모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병 들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인 2월 11일을 세계병자의 날로 정하여 매년 이날에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전 신자들에게 권고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본연적으로 가톨릭병원의 업무와 깊은 관련성이 있고, 교회의 중요한 기념행사를 한국에서 열게 되는 큰 의미와 아울러 이를 우리 협회가 준비하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병자를 연민하고 위로하는 사목적 의미를 담고 있는 비중 있는 교회 내 국제행사를 회원 모두가 뜻을 모아 정성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 이념사업의 하나인 제3세계에 대한 해외의료선교 사업은 그간 소수정예의 참여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협회 내 문화행사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의료지원을 주된 미션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톨릭 선교, 문화교류, 봉사체험을 맞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해외의료선교사업은 몽골지역을 선택하여 이미 파견할 단원을 공모 중에 있는 바 회원병원 및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허용되는 지면의 문제로 이 밖에 많은 사업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회원병원 및 각 직능협회가 주님의 은총 아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하오며 회원분 모두의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길 기원합니다. 🐦